

성우인터켄, 오메가-3 세미나 개최

성우인터켄(대표 윤재헌)은 노르웨이의 EPAX와 공동으로 12월1일 KICOX(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오메가-3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PAX는 170년 역사를 보유한 세계 최고 오메가-3 공급기업으로 출발 물질로 고품질의 Crude Oil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오메가-3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품질이 낮은 Crude Oil은 복잡한 공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할 때 트랜스지방이나 다른 산화 부산물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고품질의 Crude Oil은 저온에서 가벼운 공정만 거치기 때문에 해로운 부산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EPAX는 오메가-3 함량을 저함량에서 고품량으로 전환하는데 공헌해왔으며 성우인터켄은 EPAX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등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성우인터켄의 윤재헌 대표는 “오메가-3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진입하면서 일부에서 저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경쟁은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우인터켄은 EPAX와 같은 세계 최고 공급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검증되고 안전한 제품을 국내시장에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캐나다 Guelph 대학의 Bruce J. Holub 교수를 초청해 <EPA/DHA Omega-3 for a Healthy Human Life cycle>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LG생명과학 등 관련기업의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윤재헌 대표는 인사말에서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After Care에서 Before Care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식품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경 기자>

<화학저널 2010/12/01>